

국힘 “한일관계 정상화 궤도”...민주 “셔틀 아닌 뺑셔틀 외교”

여야한일 정상회담 엇갈린 평가

김기현 “경제·안보협력은 필수”

이재명 “국민 힐난 귀 기울여야”

8일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과 방한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일관계가 정상화 궤도에 진입했다”고 호평하며 성과 띄우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뺑셔틀 외교” “속국 외교”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이틀째 비난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서 “한일 관계가 오랜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 하고 있다”며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통 큰 결단으로 한일관계 정상화의 물꼬가 트였고, 이번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 정상화가 한 걸음 더 진전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두 정상은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있어 공조를 강화하고, 미래의 먹거리가 될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일본과의 경제·안보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성일중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 “일본 총리의 방한을 통해 역사 인식에 대한 것들이 정리됐다”며 “물컵의 반이 채워졌고, 나머지를 이번엔 기시다 총리가 채운 것”이라고 호평했다.

그는 이어 “과거 일본 정부의 반성·사과에 대해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했고, 일본 총리의 솔직한 반성도 있었다”며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국민에 대한 사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 “한일관계가 윤 대통령의 방일, 이번 기시다 총리의 답방으로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며 “정상화할 수 있는 본격 궤도에 진입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윤 의원은 “과거사에 있어 통절한 반성, 사죄 등 직접적인 표현이 있길 원했는데 그 정도는 안

갔다”며 “물컵의 반은 못 채웠지만, 그래도 반의 반은 채웠지 않냐”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역사 포기’라고 비판한 야당에 대해 “내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알뜰한 술수”라고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가장 큰 관심사였던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사죄’를 받아내지 못했다면서 ‘굴욕 외교’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심자포화를 퍼부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셔틀 외교 복원이라고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뺑 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힐난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광은 원내대표는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후쿠시마 오염수 투입의 전면 철회,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강력한 경고,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몹시 당혹스러워한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안과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짝도 발걸음을 내디디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역사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제 일본 총리가 할 말이지 한국 대통령이 할 말이나”며 “이러다 나라 팔아먹는 거 아니냐”고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미국에는 평화를 팔아넘겼고 일본엔 역사를 팔아넘긴, 하면 할수록 손해인 ‘비정상’ 회담”이라며 “나라와 안보를 팔아넘길 기세다. 윤 대통령이 일본에 무릎 꿇고 있는 건 아닌지 통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최고위원 역시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무능과 굴욕의 종합판”이라며 “이제라도 일본 정부로부터 ‘개인 감정’이 아닌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라”고 역설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과연 우리의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양국 외교라기보다는 속국 외교로 전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사진전’에서 전시된 사진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尹 취임 1년 별도 기자회견 없기로... ‘대통령의 약속’ 영상만 공개

10일 취임 1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별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취임 1주년 당일이나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부 문화행사 외에 별다른 공개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앞 ‘홍산어린이정원’ 개장을 앞두고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만큼 일주일 만에 비슷한 행사를 진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다만 기자들에게 “조금씩 나눠서 자리를 한번, 인원이 적어야 감지찌개도 끓이고 하지 않겠어요?”라며 소규모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윤 대통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윤석열TV’ (https://www.youtube.com/@president_yoon)를 통해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안보, 공정, 국익, 미래, 국력 등을 주제로 제작한 5편의 영상에 윤 대통령의 약속과 이를 지키기 위한 지난 1년간의 행보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나라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배포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달성한 16개 분야 성과와 변화를 소개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윤 대통령 지지율 34.6%...2주 연속 상승

리얼미터 조사...0.1%p 올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소폭 올라 2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윈을 의뢰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1%포인트(p) 상승한 34.6%로 집계됐다. 4주 만에 반등했던 직전 조사(4월24일~28일)에 이어 2주 연속 오름세다. 부정 평가는 0.1%p 낮아진 62.5%였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말 있었던 국민 방미 성과를 홍보하며 ‘방미 효과’가 이어지길 기대했으나,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 유출 파문으로 그 효과가 제한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7.2%p ↑), 대전·세종·충청(4.3%p ↑), 서울(2.6%p ↑), 70대 이상(3.9%p ↑), 정의당 지지층(2.1%p ↑)에서 올랐다.

부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3.4%p ↑), 광주·전라(4.5%p ↑), 30대(3.3%p ↑), 50대(3.0%p ↑), 무당층(5.1%p ↑)에서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9%, 더불어민주당이 45.5%로 집계됐다. 전주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0.3%p 하락하고 민주당은 0.8%p 상승했다.

정의당은 0.2%p 내린 3.3%로 조사됐고, 무당층 비율은 0.6%p 하락한 13.8%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0%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기시다 만난 여야... “반컵의 물잔 채워져” vs “과거사 적극 노력 필요”

정진석 “1년만에 한일관계 훈풍”

윤호중 “원전 오염수 우려 전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8일 방한 이틀째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났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 의원과 간사장인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기시다 총리와 면담했다.

50여 분간의 면담을 마치고 나온 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일관계가 속도감 있게 정상화된 데 대해서는 무엇보다 양국 정상의 용기와 결단이 큰 동력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한일관계 훈풍이 불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면담에서) ‘반 컵의 물잔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썼다”며 “일본의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해 좋게 평가하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따뜻한 메시지도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교류 협력을 확대·강화하면서 경험을 축적해 나간다면 양국 관계는 그야말로 계속 발전적인 선린우호 관계로 전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말했다”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도 성의 있는 노력을 하려는 느낌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고, 면담에서도 (이러한) 평가를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요청했고, 총리는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윤호중 의원은 기시다 총리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우려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국의 후쿠시마 지역 시찰단 제안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보내지만, 시찰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 전문가들의 공동 검증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과 함께 함께 해양 방류의 다양한 대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면담에서 과거 문제에 대한 양국 정상의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갈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삿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